제61호 단기4352년 / 2019년 02월 10일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태권도 보급 첨병에 선 공인 8단의 참 무도인 백호도장 박민수 관장

뎅기열 확산… 이달에만 1만1천명 발병 · 110명 사망

▲ 뎅기모기 [사진=마야클리닉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열대성 질환인 뎅기열 환자가 급증해 이달 들어서만 11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일간 레뿌블리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달 1~25일 전국 33개 주 372개 지역에서 1만1천224명의 뎅기열 확진 환자가 발생해 110명이 숨졌다고 전날 밝혔다.

북부술라웨시주와 중부깔리만딴 주의 까뿌아스 군, 동부누사뜽가라 주의 서부망가라이 군과 꾸빵 시 등 4개 지역에선 보건비상(KLB) 상황이 선언됐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시띠 나디아 따르미지 매개체·동물원성 전염병 담당 국장은 "이밖에 동부자바와 중부자바, 서부자바, 자카르타, 람뿡, 남부술라웨시, 동부깔리만딴 등지에서도 뎅기열 발병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기(10월~이듬해 3월)를 맞아 연일 비가 내리면서 뎅기열을 퍼뜨리는 모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 탓이라고했다.

뎅기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뎅기열은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만 대부분 심각한 증세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201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20만4천171명이 뎅기열에 걸려 1천598명이 숨졌고, 2017년에는 6만8천407명이 발병해 4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기에는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도 빈발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검토

인도네시아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이 29일, 오토바이의 고속도록 주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밤방 수사띠요 국회의장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드띡닷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수끼 장관은 동부 자바 주 수라바야와 마두라 섬을 잇는 인도네시아 내 최장 수라마두 대교(Suramadu Bridge)와 발리 섬 만다라 해상고속도로(Bali Mandara)는 이미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한 관련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다른 모든 고속도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교통부, 공공사업.국민주택부의 고속도로 통제청(BPJT),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기구(BPTJ) 등과 함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투자조정청, 인허가 OSS 시스템 통해 하루 평균 1,200건 사업자번호(NIB) 발행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토마스 렘봉 청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이번 달 2~11일 기간 동안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사업자고유번호(NIB)는 하루 평균 1,239건이라고 밝혔다.

NIB란 사업자 법인등록번호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TDP), 수입허가서(API), 관세청등록번호(NIK)가 통합됐다. 신규/기존 법인 모두 NIB를 보유해야 한다.

OSS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경제조정부가 운용을 개시, 지난 2일 운영 권한이 투자조정청으로 이전됐다.

발행 내역은 국내 투자가 8,895건, 중소기업이 541건, 외국인 투자가 486건 등이었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의 토마스 렘봉 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투자조정청은 현재 OSS 전용 사무실을 설치했다. 향후 콜센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목재회사 사칭해 투자금 28억 챙긴 5명 구속기소

▲ 대전지검 홍성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인도네시아 목재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기는 등 범행에 가담한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모집 총책 C(48)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성 높은 목재를 수출하고 부동산 개발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16년 8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264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도 전산상으로 발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필리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엔 피해자 1명에 대한 1억원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교도소 녹취파일 확인 등을 통해 다단계 형태라는 점을 확인, 불법 유사수신 조직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인니, 국가전략 31개 사업 완공 서두른다

인도네시아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국가우선개발 인프라준비위원회(KPPIP)는 올해 3분기(7~9월)에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인프라 사업 31개 안건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10월을 앞두고 인프라 사업 완공을 서두른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KPPIP의 와휴 실행 위원장은 "31개 안건의 총 사업비는 276조 4,000억 루피아에 달한다"라고 말하며 "중부 술라웨시의 모로왈리 공단(사업비 105조 루피아)과 동남 술라웨시의 꼬나웨 공단(67조 5,000억 루피아), 북부 말루꾸주 불리 제련소(19조 7,000억 루피아), 람뿡주의 땅가무스 공단(17조 5,000억 루피아), 서부 자바의 제2 찌깜뻭 고속도로(16조 2,000억 루피아) 등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다.

한편, 2016~2018년에 완공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223개 안건 중 62개 안건(320조 루피아)이었다.

자카르타 6개 신고속도로 제 1기 공사 연내 착수…2021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계획되고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 6개 구간(총연장 69.77킬로미터) 사업 주체사인 자카르타 톨로드 디벨롭먼트(PT Jakarta Tollroad Development, JTD)는 연내 동서를 연결하는 제1기 공사(2구간, 29.67킬로미터)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1기 공사 구간인 동부 자카르타 뿔로 그방-북부 자카르타 끌라빠가딩(A구간), 서부 자카르타 스마난-그로골(B구간), 그로골-끌라빠가딩(C구간)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건설한다.

JTD 프란스 사장은 "A 구간의 공사 진행 비율은 30%에 달했다. 10월 개통이 목표이다. B 구간 및 C 구간은 각각 다음달과 올 하반기(7~12월)에 착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란스 사장은 이어 "B 구간의 건설 사업자 선정 입찰은 이미 끝났다. 낙찰 기업은 추후 발표하겠다. B 구간 건설 지역의 토지 취득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총 6개 구간의 건설 공사는 3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4년 안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印尼 재무부, 법인세 인하 검토…투자 유치 확대 도모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9일자 국영 안따라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표준 법인 세율은 25%. 스리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법인 세율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필리핀(30%) 보다는 낮지만, 싱가포르(17%), 태국(20%), 베트남(22%), 말레이시아(24%)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의 실현에는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 투자자들에게 조세감면혜택과 법인세 감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선진국들의 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파크랜드 · 태광, 印尼 신발공장 추가 건설 … 나이키도 현지 물량 확대

한국 패션기업인 파크랜드와 신발전문 제조업체 태광실업이 인도네시아에 1억7,500만 달러(약 2천억원)규모의 신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 스포츠용품 전문업체 나이키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생산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지 언론 꼰딴(Kotan)은 "미중간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조업은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꼰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파크랜드로부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빠띠(Pati)에 7,500만 달러(약 840억원)를 투자해 신발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서부 자바의 수방(Subang)과 반둥 (Bandung)에 1억 달러 규모의 신발 산업을 건설

할 예정이다.

파크랜드는 현재 인도네시아 반뜬 주 세랑 1,2 공장과 스마랑에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태광은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의 증설 등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로 나이키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물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세계 신발 회사인 나이키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신발을 주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가 물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역대급 무역적자에 후폭풍 우려… 선거에도 영향 전망

인도네시아가 2018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 문제는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신흥국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4.25%에서 6.0%(12.31 기준)까지 대폭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6.65% 증가한 1,800억6,000만 달러(한화 약 202조813억원)로 비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증가율은 6.25%에 그쳐 무역부에서 예상했던 2018년 수출 증가율인 7.5%보다도 상당히 저조했다. 2018년 수입 규모는 1,886억 달러(약 211조 6,657억원)로 지난해 대비 20.15% 증가했으며,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입은 19.71%, 석유가스 수입은 22.6% 증가했다. 수입 실적 기여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입의 75%는 원부자재, 15.88%는 자본재, 9.11%는 소비재가 차지했다.

중앙통계청의 수하리얀또 청장은 인도네시아 수출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대미, 대중 수출 실적이 저조했음을 지적하고, 중국의 교역실적 저조 영향으로 2019년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조분야에서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제조분야의 성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청신호"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석유 가스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20% 혼합한 'B20'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무역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인근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들이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10일 무역 적자를 만회하고자 수출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그동안 진척 속도가 느렸던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본격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2개의 무역협정을 타결 또는 체결 예정이며, 이외에도 인니-칠레 CEPA 투자에 대한 ASEAN-홍콩 FTA 비준을 올해 앞두고 있다. 다만 무역협정이 체결 되도 즉각적인 발효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려면 2020년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2019년 경기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 글로벌 경제 상황에 좌우되기 쉽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선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을 통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루피아로 환전토록 독려해왔으나,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 정부령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수출업자들이 외환 수입금액을 루피아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령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해 3,4분기에 잇달아 발표한 수입억제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9년에도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은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이달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장 건설 논의

현대자동차그룹 대표단이 이달 말에 인도네시아 관계 장관들을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루훗 빤자이딴 해양조정장관의 말을 인용, 17일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훗 장관은 현대차그룹 대표단이 인허가 절차와 전기차 개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개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루훗 장관은 "그들이 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여기에 올 예정이다. 또 나는 관련 부처 장관들도 그 회의에 초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서부자바주 버까시, 까라왕, 뿌르워까르따 통합경제산업지역에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를 포함해 자동차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루훗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50% 이상을 주변국으로 수출할 방침이라며,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이 곧 체결될 예정인 만큼 호주가 유망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루훗 장관은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중부술라웨시 모노왈리 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니켈 라테라이트 광석을 이용해 니켈 기반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 풍부해 관련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산유국이면서도 석유 순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차량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앞서 현지 언론은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5일 내각회의에서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조만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인도네시아가 현대차 등 외국 전기차업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관련 대통령령에는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판매되는 신차의 20%(약 40만대) 이상이 전기차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차량 수입 시 부과되는 특소세(PPn-BM)를 전기차에는 감면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를랑가 하르다르또 산업부 장관도 이달 말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친환경 차량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루훗 장관과 같은 내용을 전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도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슬림 성직자 부통령 유력'…외교 기조도 변하나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오는 4월 27일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5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조꼬 위도도 현 대통령과 숙적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의 재대결로 펼쳐진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3.15%대 46.85%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었다. 가난한 농부의 태어나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인도네시아 첫 문민정부의 역사를 이끌어 낸 조꼬위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사위인 쁘라보워의 거센 공세를 이겨내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출신의 마룹 아민(75) 후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은 상대 후보를 누르고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슬림 강경파 세력을 대표하는 마룹 후보가 부통령이 될 경우 최근 수 년간 급속히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보수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보수화는 외교 기조마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미국 등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대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메디아 수르베이 나시오날(Media Survei Nasional, 이하 Median)이 이달 6일~15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마룹 아민 팀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7.9%, 쁘라보워 수비안또-우노 산디아가 팀의 지지율은 38.7%로 9.2%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쁘라보워-산디아가 팀이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조꼬위-마룹 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조꼬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마룹 아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마룹 후보는 종교적 자유 억압과 동성애자의 권리 반대, 그리고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중국계 기독교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신성모독 혐의를 씌워 감옥에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마룹 후보는 1970년대 자카르타 시의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당시 고문으로 재임하며 종교적 소수파들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2005년 울라마 이슬람 평의회 의장이 된 그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수영복 심사가 '포르노'라며 강력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종파간 결혼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후 2015년 무슬림 최고의결기구인 나둘라뚤 울라마(Nahdlatul Ulama, 이하 NU)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그는 모든 성소수자의 활동을 범죄화 하는 파뜨와(Fatwa · 이슬람 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견해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큰 권위를 가짐)를 발표하기도 했다.

마룹이 정치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6년 발생한 아혹 전 주지사의 신성모독 사건. 중국계 기독교도인 아혹 전 주지사는 비(非) 무슬림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인용한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강경파들의 반발을 사 신성모독죄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혹 전 주지사의 신성모독죄에 대한 파뜨와를 승인하며 수천 명의 무슬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룹이다. 아혹 전 주지사는 이 사건으로 결국 재선에 실패하고 감옥에 수감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강경파를 달래고자 마룹을 고문으로 임명했으며, 결국 대선의 러닝메이트로까지 낙점하게 됐다.

하지만 조꼬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신성모독 혐의를 씌우는 데 일조한 마룹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 상당한 반발을 샀고, 이와 관련해 마룹 후보는 기독교도인 아혹 전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을 모독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 이달 초 공개 사과했다.

한편 미국은 갈수록 커져가는 중국의 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룹의 부상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보수적인 무슬림 세력이 정부의 주요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한다고 해서 미국과 인도네시아간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중동 정책에 보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꼬위 대통령은 주(駐)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관대하고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평가받아 왔지만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의 49%는 "정부가 이슬람교를 다른 종교에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6%는 "이슬람교만이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종교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인도네시아에 화약 기폭용 화공품 생산플랜트 수출

현지 국영 '다하나' 공장에서 착공식… 관련 매출 1천600억원

▲ 이홍건 ㈜한화 화약사업본부장(왼쪽), 오른쪽 하리 삼쁘루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차관이 악수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수방에 있는 현지 국영 화학업체 '다하나'의 공장에서 원관 생산 플랜트 착공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원관은 화약을 기폭시키는 뇌관의 주요 구성품이다. 원관에 점화장치를 달면 뇌관이 완성된다.

㈜한화는 이달부터 36개월간 단계적으로 현지에 설비 구축을 진행한 뒤 이후 유지 · 보수 관련 기술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관 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공급 계약도 동시에 체결해 이번 생산플랜트 수출 계약에 따른 관련 매출 규모는 약 1천600억원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에 위치한 수방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한화 이홍건 화약사업본부장과 인도네시아의 하리 삼쁘루노 국영기업부 차관, 다하나의 부디 안토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를 '해외사업 확대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라면서 "산업용 화약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전자뇌관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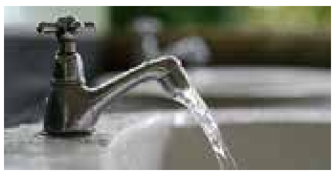
시민단체 "대통령과 자카르타 주지사는 상수도사업 재공영화 협의에 참가해라"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시민연합(KMMSAJ)'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자카르타 특별주 아니스 주지사에게 자카르타 상수도사업 재공영화에 관해 협의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의는 2월 4일 자카르타 법률지원기관(LBH)에서 개최된다.

현지 언론 뗌뽀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LBH의 넬슨 변호사는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을 다시 공영화 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법정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은 수하르또 정권 시대인 1997년에 민영화가 결정됐다. 자카르타특별주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PAM Jaya)는 1998년, 프랑스계 PAM 리요네즈 자야(PT PAM Lyonnaise Jaya)와 싱가포르계 아에트라(Aetra) 민간 2개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KMMSAJ은 2013년, 상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 2017년 10월 대법원은 "수자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업 재공영화가 결정됐지만, PAM 자야는 2019년 이후에도 PAM 리요네즈 자야와 아에트라에게 자카르타 수도 사업을 계속 위탁할 방침을 나타냈다.

유숩 깔라 부통령, "루피아 약세로 항공 운임 인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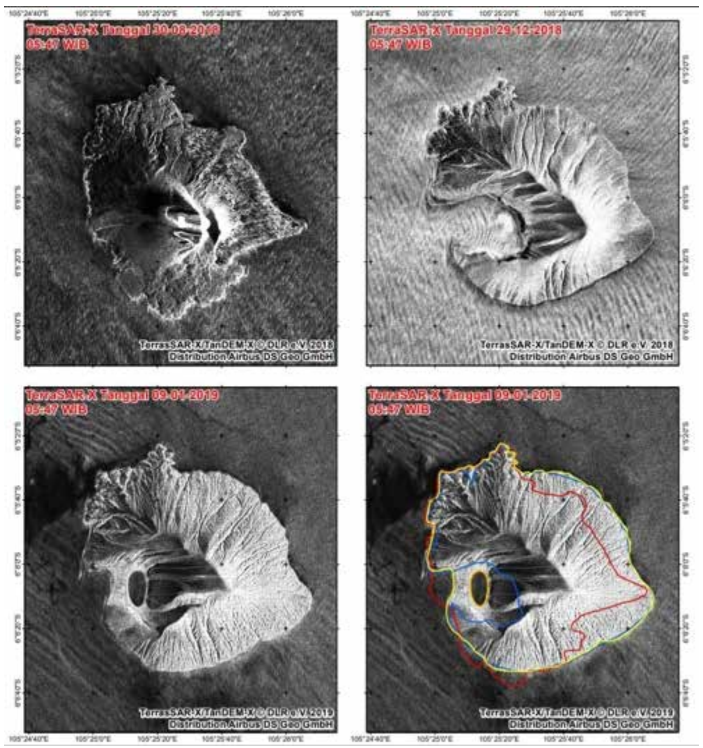
지난 14일 현지 언론 뗌뽀 등에 따르면, 유숩 깔라 부통령은 항공 운임 인상을 용인하는 생각을 드러냈다.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항공 운임 상승은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가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운임이 인상되지 않으면 많은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항공사는 비행기와 항공 연료를 달러로 구입하고 있지만 항공 티켓은 루피아로 판매하고 있다"며, "루피아 약세가 진행되면서 경영을 압박한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INACA)는 지난 13일, 이용객의 불만 사항에 따라 국내선의 운임을 20~60%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해수면 위로 새땅 솟아올라 … 쓰나미 유발 화산섬 '이변'



▲ 2019년 1월 11일 기상전문매체 어스언컷TV 창립자인 제임스 레이놀즈가 촬영해 트위터에 공개한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현재 모습. [제임스 레이놀즈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 2019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대변인이 공개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위성영상. 붕괴 1주일 뒤인 2018년 12월 29일(우측 상단)까지만 해도 바다에 잠겨 있던 지역에 2019년 1월 9일 새로운 땅이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또뽀 뿌르워 누그로호 대변인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대규모 붕괴를 일으켜 높이 5m의 쓰나미를 유발했던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화산섬에서 바다에 가라앉았던 땅이 다시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수또뽀 뿌르워 누그로호 대변인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형태 변화가 매우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대규모 붕괴는 (아낙 끄라까따우의) 분화구가 해수면 아래에 잠기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달 9일에는 침몰했던 섬 서남서쪽 지역이 다시 바다위로 솟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 중앙에는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원형의 칼데라 호수가 형성됐다.

지난 11일을 전후해서는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산화철이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섬 주변 바다가 주황색으로 물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일대에선 지난달 22일 밤 최고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최소 437명이 숨지고 1만4천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순다해협에 위치한 화산섬인 아낙 끄라까따우의 남서쪽 경사면 64헥타르(64만㎡)가 무너지면서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가 연쇄적으로 유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은 해발 338m였던 높이가 110m로 줄었다.

이후 화산활동이 격화하면서 바다에 가라앉았던 땅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지만,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의 체적은 붕괴 전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다.

아낙 끄라까따우는 전신인 끄라까따우 화산(해발 813m)이 1883년 8월 27일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솟아난 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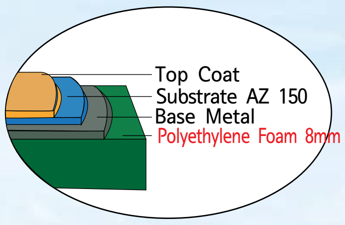
끄라까따우 화산이 있던 끄라까따우 섬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사라진 이 폭발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최소 3만6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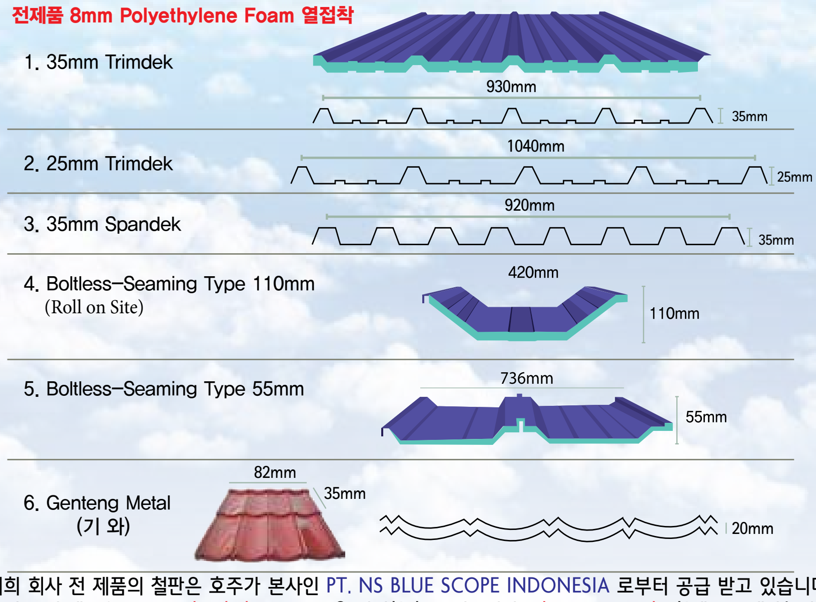
아낙 끄라까따우는 그로부터 45년만인 1928년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이래 매년 수 m씩 높이를 더해오다 지난달 대규모 붕괴를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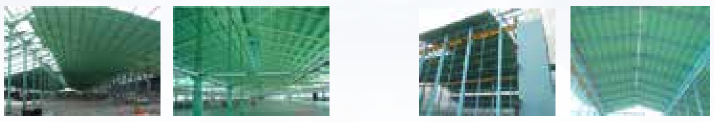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분화,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연합뉴스]

ELIT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 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박민수 공인 8단의 참 무도인이 있는 땅그랑 백호도장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자기 극복의 고결한 태도에 바탕

태권도 도장을 찾아서...

태권도를 아십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검은 띠 한번쯤은 매어 본 경험들이 있다.

매일아침 힘찬 구보와 뜨거운 함성으로 기를 모우고 체력을 단련하는 한국 남자들의 대중적인 운동이 태권도였다.

1988년 태권도가 올림픽 정

식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 태권도가 세계 각 국가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나갔고 어느새 태권도는 한국인의 국기가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속에 서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또한 정식태권도 도장이 여럿있다.

그중 땅그랑에 위치한 한국품새 도원결의팀 백호도장(관장:박민수(공인8단))이 땅그랑내에서 유일하게 정식도장으로 우리 태권도 보급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호도장은 현재 한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라와치내 아마따쁘라 아파트 지하에서 둥지를 틀고 태권도를 가르키고 있다.

백호도장 박민수 관장은 1997년 세랑에 있는 KOP-PASUS(인도네시아 특전사)에 쁘라보워 초청으로 한국국기원에서 파견되어 특전사 관장으로 처음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다.

이후 폭동사태로 한국으로 귀국 후 최근 2015년 인도네시아에 태권도 도장 개설과 태권도 보급의 일선에서 활동하기 위해 다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땅그랑 피낭시아내에서 설립했지만 그것도 잠시, 몇 개월 후 다시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다.

박민수 관장은 태권도 공인 8단의 실력과 함께 합기도, 검도, 특공무술, 호신술등의 유단자로 진정한 무술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각 사범들에게 월 1회 품새와 새로운 태권도 프로그램으로 사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범중위 사범이라는 실력파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있는 아파트 지하의 도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와 홍보의 부족으로 도장운영이 힘겨운 상태이지만 대한체육회

와 관계기관에서조차 별다른 후원인 없이 홀로서기로 어렵게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 보급에 힘써고 있다.

박민수 사범은 각 기업의 사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현지 학교와 각 단체의 정기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기회를 기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도장의 협소한 공간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후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 내 정식사범이 가르키는 태권도 도장은 땅그랑 백호도장을 비롯해 위자야와 찌까랑, 반둥에 각 한군

데 있다.

현재 한국품새 도원결의팀은 한국에 7개의 도장을 비롯해 미국,독일,인도네시아에 각 1곳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도원결의팀 교육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다.

신체운동으로서 태권도는 어린이의 성장발육, 청장년과 노인의 체력 증진, 여성의 건강과 미용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태권도의 기술 체계와 운동 형태는 신체의 각 분절을 좌우 균형 있게 구사하도록 짜여 있어, 인체 관절의 유연성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명 발달에 따라 가중되는 정신적 장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맨몸 투기로서 태권도는 맨손과 맨발로 상대방을 타격하는 기술 체계를 갖는다.

특히 다른 무술과 뚜렷하게 차이를 갖는 것은 위력적이고 다양한 발 기술이다. 발기술이야말로 태권도가 세계 최강의 투기라 말할 수 있고 태권도가 차별성 있는 종목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다.

태권도는 어떤 무기의 사용도 없이 인체를 사용하지만 일편필승의 가공할 공격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는 방어를 우선하는 기술 습득 원리를 강조한다.

이는 평화와 공정성을 존중하는 태권도의 정신적 기반에서 비롯한다. 이를 통해 태권도는 배우는 이가 수련의 목적을 결코 남을 공격해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의 고결한 태도에 두도록 만든다.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태권도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자아완성에의 의지를 실천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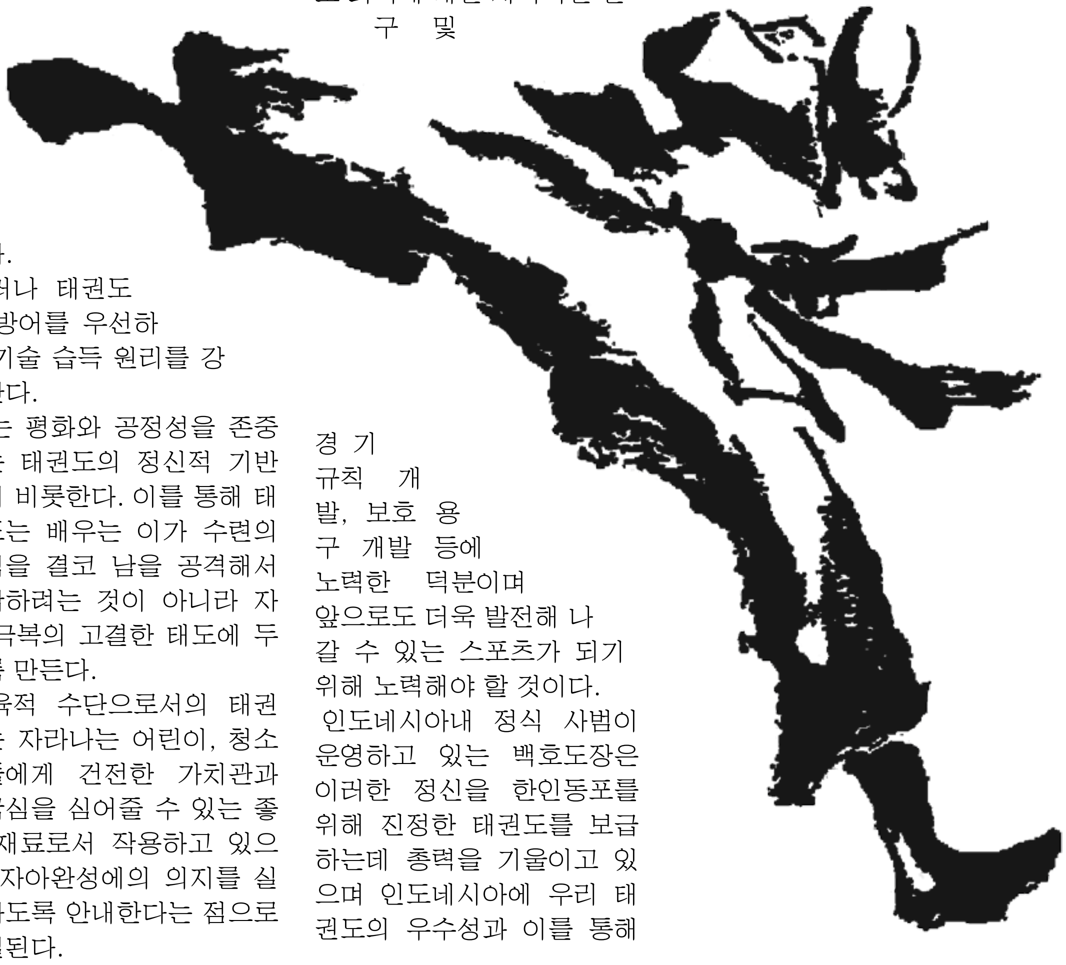
▲ 도원결의팀 백호도장 박민수 관장 (공인 8단)

이를 위해서 태권도 수련자는 평화 지향적인 기술 체득 원리를 이해하며 빈번하고 반복적인 예절 교육을 통해 자칫 빠지기 쉬운 자기 중심적 삶을 뛰어넘어 인간 생활에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인간 생활에서의 덕목들이 교육으로서 태권도가 추구하는 바이며 바로 이점이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관이다.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대회를 갖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스포츠 종목이 되었으며 특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서 채택된 것은 이를 명확히 해주는 결정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 뒤에는 태권도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경기 규칙 개발, 보호 용구 개발 등에 노력한 덕분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내 정식 사범이 운영하고 있는 백호도장은 이러한 정신을 한인동포를 위해 진정한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우리 태권도의 우수성과 이를 통해 한국의 정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

박민수 사범의 백호도장에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한다.

DOWONGUL-EUI
Poomsae team
Alamat
Lippo Karawaci
Tangerang
E-mail
bhtkd@naver.com
HP
0812-9455-8430
0815-8682-9056

설교가 딴소리 하는 이유
성경 해석의 '특수성'과 '보편성'

만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으니 오늘날 우리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 받을 것이다. 그런 억지는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전11:13)"고 가르친 부분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

문자적 해석의 위험성

그러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까? 사실 이 논점을 잘못 이해하여 어떤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엉뚱한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특정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 글자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이는 사이비나 이단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로봇이나 타자기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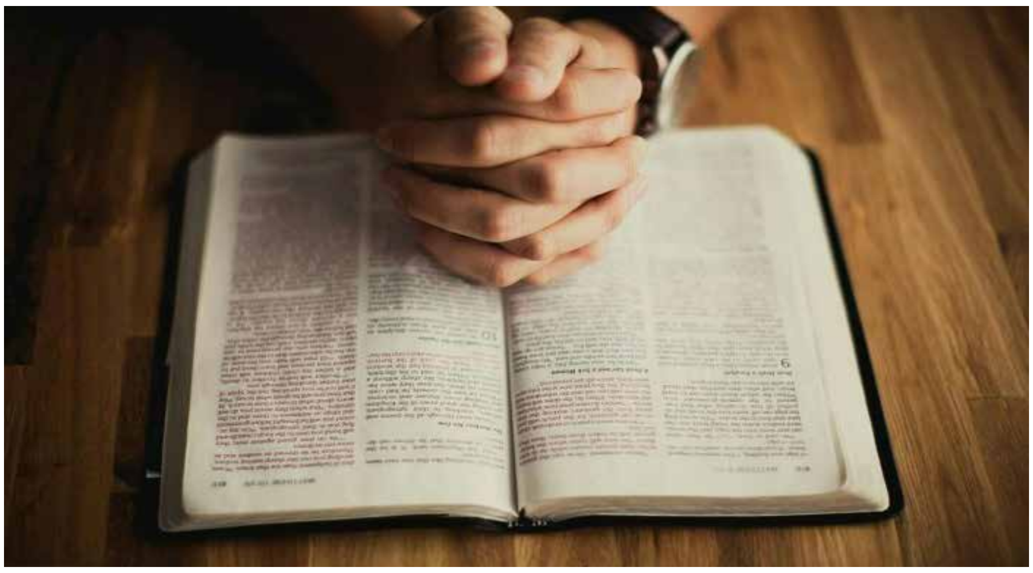
성경은 그 기록자가 처한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관습의 틀 속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성경에 노비나 첩이 허용되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결코 아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문법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지 글자에 갇혀 모든 내용을 문자적, 문장적, 일반적,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충분히 구별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가르침을 보편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

'보편적 진리'를 분별해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14:34)"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요즘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여자 교인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운영이나 사역에 참여하여 제직회나 기타 공적 모임에서 필요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돌로 치지는 않는다.



성경 해석은 과거 기록 당시의 '특수적 상황'에서 '보편적 진리'를 배우고, 그 보편적 가르침을 현재 우리가 처한 각자의 '특수적 현실'에 다시 바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건 성숙한 성도들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거꾸로 이를 오해하여 당시의 '특수적 상황'에서 특수한 지침을 배우고, 다시 그 특수한 가르침을 우리의 또 다른 특수적 현실에 무조건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매우 큰 혼란과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 한국교회에는 이런 답답한 오류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일조를 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도 지금 십일조 해야 한다는 식의 성경 해석은 매우 무식한 거다. 예수님은 당시 구약 신정국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중에 성전과 제사제도가 무너진 후에는 십일조를 버리고 자원적 연보를 가르쳤다. 우리가 지금 구약이 명령하였던 안식일이나 동물 제사나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수적 가르침'의 보편적 오용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 진리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당시 고린도교회의 특별한 환경에서 주어진 특수적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런 특수적 지침을 보편적 가르침으로 마구 일반화하여 현대 교회에서 여자 성도에게 "입 다물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성경의 진의를 모르는 행위다.

요즘 일부 보수 교단에서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주장 따위가 바로 그런 대표적 예다. 여자 성도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벧전2:9)'의 신분인데 왜 목회나 설교를 못 하나. 여성 교역자들 또한 이미 제사장의 신분인데 굳이 목사를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설교가 딴소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록 당시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특수적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보편적 진리'인 것처럼 모든 상황에 무차별 적용하는 데에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엉뚱한 주장을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듯 용감무지하게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 교단으로 갈수록 이런 교조적 현상은 더욱 강하다. 사실 한국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장 부패한 교회가 된 이유도 이런 설교 오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심할 경우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이용하기 때문이다.

바른 설교는 사람을 살리고 잘못된 설교는 사람을 해친다.

"설교가... 그 깊이가 주는 울림이 아니라 말빨이 주는 개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재치있는 입담과 적절한 신파 예화 한 두개만 잘 섞어면 '감동 설교가'의 반열에 오른다. 거기에 적당한 발라드 찬양 하나 잘 골라서 반복해서 부르게 하면,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라며 눈물을 흘린다." – 옥성호

신성남 당당뉴스

대한민국대사관 SNS 서포터즈 '사하밧 코레아(Sahabat Korea)' 출범

"우리는 모두 한국의 절친(Sahabat Korea)!"
총 100인의 서포터즈,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홍보 위한 첨병 역할 자임

2019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00인의 SNS 서포터즈, '사하밧 코레아(Sahabat Korea)*' 출범식이 2019.1.19.(토) 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절친이라는 뜻)

출범식에는 대사관, 한국문화원(KCC), 한국관광공사(KTO),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교부 한국 담당 관계자도 참석했다.

출범식은 축하공연, 김창범 대사 환영사, 사하밧 코레아 운영 계획 소개, 한국문화원 활동 소개, 한국관광공사 활동 소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활동 소개, 미니 워크숍(K-pop, 한식, K-beauty 등), 사하밧 코레아 위촉장 및 티셔츠 수여,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출범식에 앞서 대사관 홍보 인스타그램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한복 착복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인의 사하밧 코레아는 2019년 1년간 대사관 SNS 게시물을 개인 플랫폼에 공유(repost),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본인이 만든 한국 관련 게시물 포스팅, 대사관 및 관련 기관 행사 참석 후기 작성, 대사관 주최 공공외교 간담회 참석 등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작년 11월 대사관 SNS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하밧 코레아를 모집하였으며, 3주가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928명이 지원했다.

대사관은 지원자 중 팔로워 수, 자체 창착 게시물의 개수와 품질, 한국에 대한 관심, 사하밧 코레아 활동에 대한 열정 등 기준에 따라 총 100명을 선발했다.

사하밧 코레아 구성원은 모두 인도네시아인으로, 회사원, 마케터, 대학생, 블로거, 그래픽 디자이너,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 K-Pop, 커버댄스, 한식, 한국어, 한국 여행, K-Beauty 등 한국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갖고 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2019년도 '사하밧 코레아' 프로젝트를 포함,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평균 연령 30세 미만의 젊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밀레니얼 세대가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업銀, 인니 아그리스은행 인수 완료…통합작업 착수

IBK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아그리스은행(PT Bank Agris) 인수를 마무리했다. 인수 조건이었던 현지 은행 추가 인수와 금융당국의 승인을 충족시켜 올 상반기 안에 두 은행을 합병한 현지 법인을 출범하고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6일 아그리스은행 지분 95.79%를 인수했다. 총 50억4,000만주 규모다. 지난 15일 주당 228루피아에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수가는 900억원 가량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 11월 아그리스은행의 대주주인 DIP(Dian Intan Perkasa)와 82.59%를 매입하는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추가 계약을 통해 매입 규모를 95.79%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을 2곳 이상 인수하고 합병할 때에만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뜨라니아가은행(PT Bank Mitraniaga)의 지분 71.68%를 인수키로 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은행에 대한 인수를 승인 받았다.

남은 것은 미뜨라니아가은행 지분 매입과 두 은행의 합병이다. 기업은행은 조만간 이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합병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병 후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두 은행의 대내외 규정을 합치고 세부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본금 기준에 따라 영업범위가 정해지는데 현재 아그리스은행과 미뜨라니아가은행은 1조 루피아 미만의 소형은행(BUKU1)이다.

두 은행을 합치면 1조~5조 루피아 미만으로 등급이 한 단계(BUKU2) 상향된다. 같은 소형은행이지만 가능한 외환거래 규모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커진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BUKU2에 속한다"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무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페이, 해외송금 서비스 시작… 17개국 송금 가능

삼성전자는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해외송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페이 해외송금 서비스는 소액해외 송금업자인 '한패스', '센트비'와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해외 현지 은행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프리펀딩', 여러 건의 해외송금 요청을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풀링' 방식으로 기존 은행권 대비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삼성전자는 "중계·수취·환전 수수료가 없어 해외송금 화면에서 계산된 최종 금액을 바로 보낼 수 있다"며 "또 제휴사별 해외송금 수수료, 환율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등 17개국이다.

이용자는 삼성페이 '해외송금' 탭에서 보내려는 나라와 금액을 선택한 뒤 은행 계좌, 캐시 픽업, 홈 딜리버리 등 다양한 전달 방법을 통해 송금하면 된다.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사용자 본인의 시중 은행 계좌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해외송금 서비스는 소액해외송금업자, 은행 등 제휴사와 대상 국가 및 통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SKT T맵 해외 진출한다 … 동남아 그랩과 조인트벤처 설립협약

T맵 기술·그랩 데이터 결합, 그랩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1분기 출시 예정

SK텔레콤은 30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그랩(Grab)과 조인트벤처 '그랩 지오 홀딩스'(Grab Geo Holdings)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둘 '그랩 지오 홀딩스'는 그랩의 제럴드 싱 서비스총괄이 최고경영자(CEO)를, SK텔레콤의 김재순 내비게이션 개발 셀(Cell)장이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다.

SK텔레콤은 지난 17년간 T맵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제품 사업화까지 전체 기술 방향과 개발 로드맵, 전략 등을 담당한다. T맵은 월평균 실사용자 수가 1천150만 명으로 국내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그랩'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리무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만 누적 기준 1억3천500만건으로,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중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DiDi), 미국의 우버(Uber)에 이은 3위다.

양사는 그랩 지오 홀딩스를 통해 다양한 위치 기반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랩 지오 홀딩스는 첫 서비스로 1분기 중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T맵 기반의 그랩 운전자용 내비게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차량과 도로 정보, 교통 현황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초정밀 위치 측위 솔루션 등 T맵의 핵심 기술력과 인프라를, 그랩은 동남아 각국의 차선, 신호등 등 도로 정보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랩 지오 홀딩스는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으로 내비게이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앤서니 탄 그랩 CEO는 "그랩은 매일 동아시아에서 새로 생기는 도로를 추가하는 등 지역특화(Hyper Local)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지도·내비게이션 기술과 그랩의 지역 데이터의 결합은 이 같은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KT, 동남아 그랩과 조인트벤처 설립협약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과 그랩의 앤서니 탄 CEO가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맵&내비게이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JV '그랩 지오 홀딩스(Grab Geo Holdings)' 설립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다록,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깍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텍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산업銀, 내달 자카르타 사무소 신설 … 신남방 속도 낸다

산업은행이 다음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새로 설립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新南方)' 정책에 발 맞춰 동남아 시장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인도네시아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고 다음달 말께 자카르타사무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자카르타에 산은 주재원이 한 명 있는데 이를 사무소 단위로 격상시켜 다음달 출범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자카르타사무소는 9번째 해외사무소다. 산은은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정책금융기관 SMI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무소 설치에 착수했다.

산은의 아시아지역본부는 싱가포르지점이며 홍콩 현지법인도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자카르타사무소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일대의 산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시설자금 지원 등에도 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산은 관계자는 "자카르타사무소는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개발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천명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 "상반기 현지 합병 절차 마무리할 것"

APRO SERVICE GROUP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등이 소속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올 상반기까지 OK뱅크 인도네시아(옛 안다라뱅크:Bank Andara)와 디나르 뱅크(Bank Dinar)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29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금융권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해 10월 인수를 완료한 상장사 디나르은행을 OK뱅크 인도네시아와 합병하는 절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중대형은행으로 키우기 위해 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규제를 고려해 두 군데의 현지 은행을 인수했으며, 최근 하나금융그룹 산하 전산 시스템 계열사인 하나금융TI를 통해 현지 은행의 금융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마쳤다. 합병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올 상반기 두 은행이 합병하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통합 은행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두 은행이 통합되면 통합 은행은 중소형급인 'BUKU2' 은행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기본자본(Tier1) 규모에 따라 120여개 은행을 BUKU1~4로 분류한다. BUKU4에 해당하는 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고 우량하다. 두 은행이 속한 BUKU2에는 기본자본이 1조~5조 루피아인 은행이 속한다.

2018년 6월 기준 디나르은행의 총자산은 1,960억원, 자기자본 365억원이다. OK뱅크 인도네시아는 총자산 1,483억원, 자기자본 860억원이다.

두 은행이 합병하면 자기자본 1조5,000억 루피아(1,200억원)급 은행이 된다. 올해 추가 자본 납입이 이뤄지면 자본 규모는 2조 루피아까지 커질 전망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현지 중대형 은행인 BUKU3까지 성장시켜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 중 BUKU3에 속하는 곳은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과 KB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부코핀은행(Bank Bukopin)뿐이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PMDN,연락사무소)
2. 투자청,온라인 허가(OSS, NIB-APIU,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사무실,공장,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원부자재소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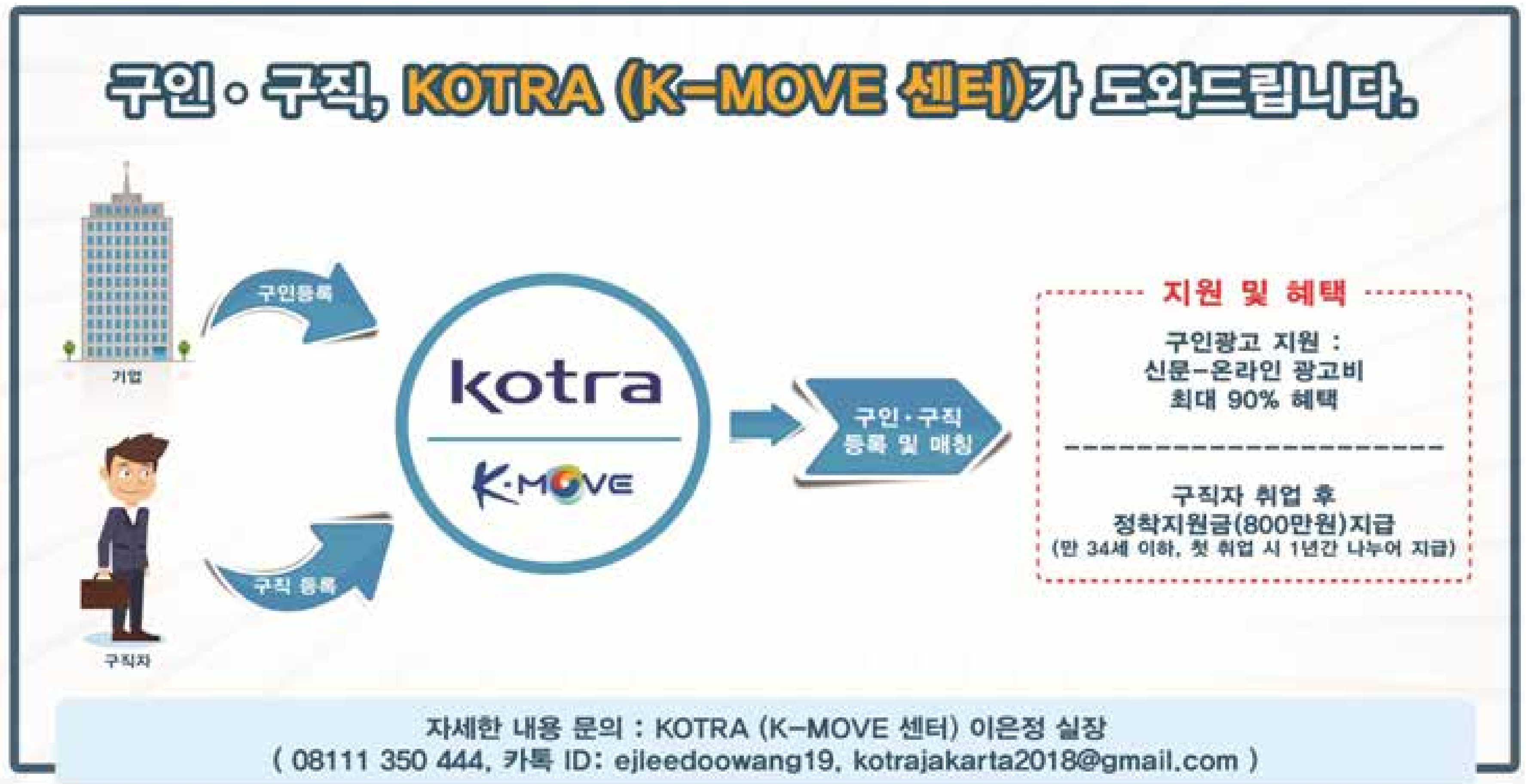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뽀 까라와치 루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 – 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해외취업장려금
1) 지원대상자: 만 34세이하 해외취업성공자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3) 지원금액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1) 자카르타 경제신문,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58회 열린강좌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반응

"이슬람 금융에서 시작된 이슬람 경제는 점차적으로 이슬람식 생산, 유통, 소비를 포함한 생활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무슬림 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한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까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26일 이지혁 박사를 초청해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제58회 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지혁 박사는 1970년대 이슬람 금융에서 시작된 이슬람 경제는 2000년 이후 서서히 이슬람식 소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할랄 인증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하고 구매력을 갖춘 무슬림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경제가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슬람 경제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적 개념의 '이슬람 경제학'을 주창한 파키스탄의 사상가이며 법학자였던 마우두디(Sayyid AbulA'la Maududi)는 생활 전반의 삶으로서의 이슬람을 강조하면서 이슬람 경제학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경제학이란 이슬람의 법체계인 샤리아(Sharia)에 부합하는(compliant) 혹은 샤리아에 바탕(Sharia based)을 둔 경제학이다.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 Islamic Economy)'는 매년 세계이슬람경제지표(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 GIEI)를 발표하는데, 이 지표에서 점수로 환산되는 영역은 할랄 식품, 할랄 금융, 할랄 패션, 할랄 관광, 할랄 미디어 및 레크리에이션, 할랄 의약품, 화장품 등 7개이다.

이 중 한국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할랄 식품과 할랄 관광이다. 또한 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할랄 금융 분야에서 수쿡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찰과 저항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할랄 식품과 할랄 관광이다. 또한 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할랄 금융 분야에서 수쿡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찰과 저항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혁 박사는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한인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인니문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문화원 K-콘서트 상영행사 통해 K-POP 열기 후끈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주재국 케이팝 팬들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간 매주 금요일 K-콘서트 영상 상영행사(K-Concert Movie Screening)를 개최하여 K-POP에 대한 열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매달 개최예정인 K-영상 상영전의 일환으로 1월 한달동안 개최하게 된 K-콘서트 영상 상영 행사는 △1.4.(금) 워너원의 'Wanna One Premier Fancon with Wannable', △ 1.11.(금) 데이식스의 '2018 Every Day6 Finale Concert – The Best Moments', △ 1.18.(금) SM엔터테인먼트의 'SM Town The Stage', △ 1.25.(금) BTS의 'Happy Ever After BTS 4th Muster' 순으로 영상을 상영 했으며, 특히 전 세계에 최강 팬덤을 형성한 방탄소년단의 상영행사에는 사전신청에만 800여명이 신청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류팬들의 식을 줄 모르는 열기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국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이번 K-콘서트 영상 상영 행사에 참여한 팬들은 영상을 상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가수들의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와 전용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고, 아이돌의 노래에 따라 각기 다른 응원법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등 마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K-POP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팬들에게는 k-pop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전 세계 20개 도시에 동시 개봉하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투어영상도 때맞춰 1월 26일(토) 인도네시아 전국 CGV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인데, 아직 시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케이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CGV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상영관 좌석이 모자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할 정도라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다. 주재국 언론 또한 아이돌 가수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K-POP을 대하는 태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명하며 K-POP이 창조경제의 모습이라면서 그 인기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천영평 한국문화원장은 영상 상영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네시아 한류팬들이 직접 한국문화원을 방문해서 마치 콘서트현장과 같이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한류와 K-POP에 대한 인도네시아 한류팬들의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의 불씨가 더 높여 질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행사를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국민 그리고 교민들과 소통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해 앱 이용시간, 인도네시아가 하루 4시간으로 세계 최장 기록

모바일 앱 데이터 제공업체 앱애니(App Annie)가 2019년 전세계 모바일 앱 생태계와 트렌드를 분석한 '2019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수는 1,940억 건을 돌파했으며 2016년 대비 3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응용 프로그램 관련 국내 기업 중 배차 앱 고젝(Gojek), 전자상거래(EC) 사이트 또꼬뻬디아(Tokope-dia)와 부깔라빡(Bukalapak), 여행 사이트 트래블로까(Traveloka) 등 4개사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으로 성장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루디 안따라 정보통신장관은 "응용 프로그램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각 응용 프로그램 회사는 국내에 주재 사무소를 설치하고 콘텐츠 내용이 사회 규범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액세스를 차단하는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앱애니는 또 2019년 모바일 시장에 대해 예측했는데, 올해 앱 소비 지출이 올해보다 약 200억 달러 늘어난 1,200억 달러로 추산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앱 소비 지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이버한국외대, 재외동포재단과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 협력 MOU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중렬)는 지난 2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 연구 기회 확대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 물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재외 한글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글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와 재외동포재단 소속 임직원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사이버외대 한국어학부에 입학한 우수한 한글학교 교사에게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과정과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이나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 한국어교육 능력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예비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김중렬 총장은 "외국어교육에 특화된 우리 대학은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와 최정예 교수진,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강의 수강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2월 14일까지 2019년 1학기 2차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가수 션, 인도네시아 100명의 아이들과 결연

▲ 가수 션의 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션이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결연을 했다.

션은 30일 인스타그램에 "컴패션을 통해 새롭게 품은 100명의 인도네시아 아이들. 내가 오늘 잡은 너의 손 놓지 않을께. 이제 전세계 1004명 아이들의 아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션은 아이들과 결연,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션의 글이 공개되자 팬들은 "1004명이요? 거의 마더 테레사". "항상 응원하고 존경한다", "진짜 천사다. 션을 보고 아동 결연을 했다" " hati mu seperti malaikat (너의 마음은 천사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션은 2004년 정혜영과 결혼해 노하음, 노하랑, 노하율, 노하엘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션은 현재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민족의 중심채널 〈KBS WORLD 24〉가 새롭게 찾아갑니다!”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WORLD 24>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해외동포 · 재외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찾아갑니다. 그동안 <KBS WORLD 24>는 뉴스 중심 채널이었지만, 2019년 명실공히 24시간 종합편성 채널로 거듭나 훨씬 더 다양하고 엄선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많은 지역의 동포들을 만납니다.

우선 2019년 3월 4일 프로그램 대개편을 합니다.

▶ 한국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다면 <KBS WORLD 24>를 틀면 됩니다. <뉴스9>, <뉴스7> <뉴스광장>, <뉴스12>, <남북의창>은 물론 영어뉴스인 <KBS WORLD NEWS TODAY>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KBS 다큐멘터리도 풍성합니다. <KBS 스페셜>, <시사기획 창>, <다큐멘터리 3일>, <인간극장> 최신작은 물론, <한국인의 밥상>,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명품 프로그램을 한 주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가 담긴 감동을 드립니다. 동포들의 심금을 울릴 <가요무대>의 경우, 최신작은 물론 80, 90년대 제작물도 방송해 추억의 가수들이 직접 부르는 명곡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TV쇼 진품명품>, <국악한마당>,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 KBS 명품 대하드라마를 비롯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KBS 드라마들을 엄선해 방송합니다. 첫 번째 대하 사극은 한민족 통일을 바라는 의미에서 <태조 왕건>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권역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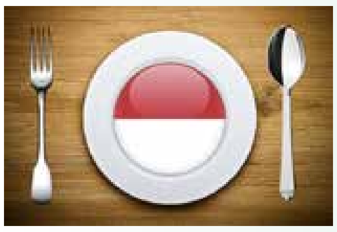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LA(KXLA 44-8), 시카고(WOCK 13-6), 애틀란타(WSKC 22-1) 등 일부지역 지상파로만 방송했지만, 2월 말부터는 위성방송인 DirecTV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올해 1월부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전역에서 Yamal 401 위성방송(11668MHz)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Yamal 401 위성방송은 홋카이도 등 일본 북부지방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Korean IPTV), 미얀마 (Cookie TV) 등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WORLD 24>,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가정, 식비에서 외식 30% 이상 차지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조리된 식품을 포함한 외식비가 인도네시아 가정의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29.6%에서 2017년 32.7%, 2018년 34%로 확대됐다고 지난달 30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반뜬 찌뿌땃(Ciputat)에 거주하는 한 남성(27)은 “조리 시간이 걸리지 않고, 뒷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식을 선호한다” 고 말했다.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 사는 여성(30)도 “오전 7시에 집을 나와 오후 8시에 귀가하기 때문에 직접 요리할 기력이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집계한 지난해 건강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성인 비만 인구 비율은 지난 2013년 14.8%에서 지난해에는 21.8%로 증가했다. 보건부의 한 관계자는 “야채와 과일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에 머물고 있어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이어질 것” 이라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립 보고르 농과대학(IPB)의 스끼르만 교수(영양학)도 “외식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양 편향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슈프리마아이디, 인니 경찰청에 ‘라이브지문인식 스캐너’ 공급

바이오인식 아이디 및 시큐리티 솔루션 전문기업인 슈프리마아이디(대표 박보건)가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운전면허증 발급용 지문인식장치 300여대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슈프리마아이디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대국민서비스 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동식 경찰버스 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슈프리마아이디는 라이브지문스캐너 ‘리얼스캔-G10’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

슈프리마아이디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현지 RFID 솔루션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앞서 다년간 인도네시아 경찰청 및 금융권에 제품을 공급해 왔고 이번

에 경쟁사 대비 뛰어난 평가를 받아 수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는 기존 사용되던 지문 스캐너를 공급한 미국 업체였다.

박보건 슈프리마아이디 대표는 “인구 기준 세계 4위의 핵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며 “향후 진행될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민국 출입국 시스템 사업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써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